

국가간 격차 심화에 주목

제국주의 이론의 새로운 경향 고찰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경주되어 왔다. 그결과, 역사상의 큰 이슈들이 대개 그렇듯이, 단일한 답 대신 다양한 모델에 입각한 여러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제국주의에 관한 이론들은 제1차 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지고 영향력이 큰 것이 맑시스트의 이론이다. 한편 근래의 이론은 2차대전 이후에 맑시스트 계열과 비 맑시스트 계열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론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국주의 이론에 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으므로 그 시기 전후의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제국주의 이론이 깊게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독립 이후 현대사회의 이해하는 데에도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제국주의에 관한 고전이론을 간단하게 언급한 후 근래의 이론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경향을 주로 검토해 본다.

II. 고전이론

1) 맑시스트 이론

레닌은 1차 대전 중인 1917년에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곧 정통 맑시스트의 제국주의 이론으로 간주되었다.

레닌은 흡수, 합병 등의 전제를 받아들여 제국주의의 원인을 제국주의 국가의 사회 경제적 요건,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 상태에서 찾았다. 즉 그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형성되는 독점 금융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 그리고 해외 영토의 분할이 그에 수반되는 것이 제국주의라고 설명하였다.

'비공식 제국주의' 개념 도입 주변국 정세에 대한 관심 높아 변혁주체화된 정부수립이 신생 독립국의 일차과제

레닌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로서 19세기 말 유럽 국가에 의한 아프리카의 분할과 제 1차 대전을 지적하였다. 그에 있어서 1차 대전은 제국주의의 산물이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도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III. 근래의 이론

1) 맑시스트의 새 이론

이차 대전 이후 발달된 제국주의 이론들 중 맑시스트 계열은 주로 두가지 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하나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경제적 격차의 심화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제국주의에서 찾는 입장이다. 남미의 빈

곤을 자본주의의 침투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프랑크의 '제국주의의 발전론', 그리고 후진국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속에 주변부로 편입되어 중심부에 의해 착취당한다고 본 윌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후진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분석할 적절한 틀에 관심을 집중시킨 경우다.

이 이론도 대체로 후진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자본주의 국가의 제국주의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파악하므로 앞의 제국주의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맑스의 생산양식론이 후진국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후진국의 사회경제적 전망은 어떠한지 주 관심이므로 후진국의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IV. 맺는말

근래에 제시된 제국주의 이론들은 맑시스트적 비 맑시스트적 공통으로 두가지 면에서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제국주의적 현상의 범위를 이전보다 훨씬 넓게 잡는다는 점이다. 비공식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 켈러거와 로빈슨

의 경우가 특히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맑시스트들도 제국주의를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그 자체로 파악함으로써 제국주의를 특정한 정책으로서 한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있다.

둘째로 제국주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이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에서부터 주변부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이다. 고전이론들은 제국주의의 원인을 유럽 국가의 국내 사정에서 찾는 한편 주변부는 파동적인 위치이므로 제국주의의 행사에

서 심하게 주목하여 그 원인을 제국주의에 의하여 왜곡된 후진국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찾으려 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주변부 정세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켈러거와 로빈슨의 이론은 제국주의의 행사가 주변부의 협력체제에 의하여 대부분 설명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제국주의의 연구에 있어서 주변부 정세에 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주변부의 정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제기되는 문제는 주변부의 정세에 관한 전망이다. 근래의 맑시스트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착취구조로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후진국의 피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편 켈러거와 로빈슨은 신생 독립국의 일차적 과제가 정부를 변혁시켜주는 일이라고 파악하고 그 성패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별 관련없이 신생 독립국 지도층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후진국 상황에 관한 비 맑시스트의 입장은 여전 160년대의 근대화론의 맥락에 서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 태 숙
(문리대교수·사학)

학술정보

'제3회 약사교실' '보건의 역사' 등 주제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에서 2박3일 제3회 약사교실을 주관한다.

9월에 열리는 전국의 약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약사교실은 전국약대학과 학생회연합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2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개 및 건강 활동상황 보고, 약사로서의 올바른 사회 진출

△29일: 우리나라 보건의 역사, 민족건강의 실태

△30일: '보건의 역사'를 주제로, 민족민중운동의 현황과 전망, 보건의 동향, 보건의료운동단체 소개 및 연대활동보고, 대중놀이

동계 여학특강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동계방학중 여학특강을 실시한다.

영역 4강좌와 일어 1강좌를 총 5강좌를 실시하는 이번 특강의 장소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TIME=정경대 301호 △TOFEL=정경대 111호 △중환영어=정경대 401호 △Vocabulary=정경대 301호 △일어=정경대 401호

레이저연구소 엑사이머레이저 연구세미나

레이저공학연구소는 지난 20일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최근 소련에서의 엑사이머 레이저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V.S. Bukreev 박사(소련과학원 일반물리연구소 부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산화탄소레이저의 개발 등에 대해 토의했다.

원자와 논문 발표회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석사학위 논문발표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공과대학 254호에서 열린다. '핵연료 재장전 노심 선정 Expert System'을 위한 노심 분석코드 개발'이란 제목으로 백병찬(석사4기)씨가 발표하게 된다.

주심사위원은 이원근교수이며 부심사위원은 박광현교수와 김명현교수가 맡게 된다.

동북아 연구원 세미나 '북한의 무역정책' 주제로

본교 동북아 연구소가 개방화에 따른 북한의 무역정책 변화 '이란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2시 본관4층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연구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동북아 정치·경제변화 연구의 일부분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대학원내 동아시아 연구원들이 토론에 참가하며, 김용환(사회과학연구소

서평

페리 앤더슨 저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자본주의 이행경로에 대한 史的조명

페리 앤더슨의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도서출판 베를, 1990)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유럽 국가들까지 유럽의 역사를 사적유물론에 입각하여 정리해 보려는 한 작가 지식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원래 앤더슨의 계획은 1권에서는 고전 고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세 말까지 2권에서는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기를, 3권에서는 16세기의 화란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부르주아혁명들, 마지막 4권에서는 부르주아혁명으로 등장한 유럽 각국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다루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앞의 두권만 나왔을 뿐이다.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출현의 역사적 상황(Context)과 기능이 달랐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서유럽에서는 중세말의 봉건제의 위기를 겪고 나서 농노제가 해체되고 도시가 출현, 발전함으로써 봉건제와 절대왕정이 판관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출현하는 등 대체로 서구에서는 절대주의의 역사가 초기에 종식되었다. 반면 동구에서는 농노제가 전 사회를 뒤덮고 있었던 고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진화가 저해되었으며 그 결과 절대주의의 국가가 20세기 초까지 존속하여 서구와 동구 간의 역사발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러나 절대주의 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이러한 내부적 요인 - 즉 계급간의 관계 - 뿐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도 도외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저자는 지적한다. 앤더슨은 서구의 귀족들은 화폐경제의 진전으로 위협받고 있는 토지재산의 공고화, 동구의 귀족

맑스이론과 실증역사학 접목시킨 성과물 유럽절대주의의 형성과정을 두 계보로 설명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왕의 파세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 계속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국왕의 권력은 강화되고 국왕개인에게로 집중되었으며 반면 이제까지 공권력의 일부를 행사해 왔던 봉건귀족들은 권력을 박탈당해 갔다. 앤더슨은 서구의 귀족들은 화폐경제의 진전으로 위협받고 있는 토지재산의 공고화, 동구의 귀족

그 사회적 진화에 비해 이른 시기에 절대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동구 절대주의의 국가는 농노제를 확립,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동구 역사의 전반적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저자는 절대주의 국가의 상이한 두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원래 각기 일곱 개의 단권으로 구성된 서구와 동구의 두 부분과 결론, 그리고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일본의 봉건제에 대한 두 개의 논문으로 되어 있으나 필자와 동료들이 번역한 우리말 판에는 본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두 논문은 빠져 있다.

앤더슨의 이 연구는 그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론과 구체적 역사적 사실이 결합되어 있는 큰 장점을 보이고 있다.

사적유물론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뿐 아니라 서구 역사학이 내어 놓은 근래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동구에서 경량의 변화가 일고있다. 74년에 씌어진 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동구를 재조명해보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하다.

김 현 일
(동덕여대 강사·서양사)

新귀족주의 캐주얼웨어 - 이니izio

코오롱이 탄생시킨 새로운 캐주얼웨어-이니izio
이니izio가 20세기를 新貴族主義를 주장합니다.

신 귀족주의 /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이는 캐주얼웨어는 귀족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방식이 남달라 그 어떤 기백과 기풍을 느끼게 하는 이니izio의 이즘(ism)입니다.



INIZIO 마크디자인 공모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인 INIZIO의 마크에 대학생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십시오.

디자인 공모요강

- 응모자격: 전국의 남녀 대학생
- 응모요령: 8월 25일까지 포스터발표로 디자인(단 디자인 기법은 프린트 및 자수이며 마크 디자인이 사용될 제품은 컴퓨터와 타자조합·우편으로 접수)
- 응모마감: 12월 15일(마감일 소인유무)
- 심사방법: 최우수작 5명 - 각 INIZIO 동점자 1명씩 선출
- 참가상: 참가자 전원 복종과 타자, Member's Card, 30% 할인 구매권 증정
- 시상발표: 개별통보
- 보낼 곳: 우편번호 110-040, 서울시 중구 동의동 35-34 코오롱 BLDG. 코오롱스포츠 이니izio 사업팀
- 문의전화: (02) 738-2416



코오롱스포츠(주)
코오롱스포츠